

현대사를 증언해온 삶의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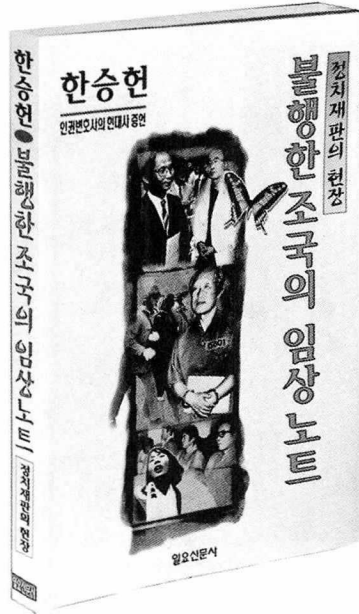
《불행한 조국의 임상노트》 펴낸 한승헌 변호사

한 개인의 인생 역정에는 어떤 형태로든 그가 속한 사회의 역사가 깃들게 마련이다. 하지만 일제 말기에 태어나 동족상잔의 전쟁을 겪고, 70~80년대의 굼직굼직한 시국사건의 재판 현장을 어김없이 지켜온 한승헌 변호사(63)의 삶만큼 우리 현대사를 극적으로, 사실적으로 증언하는 경우는 드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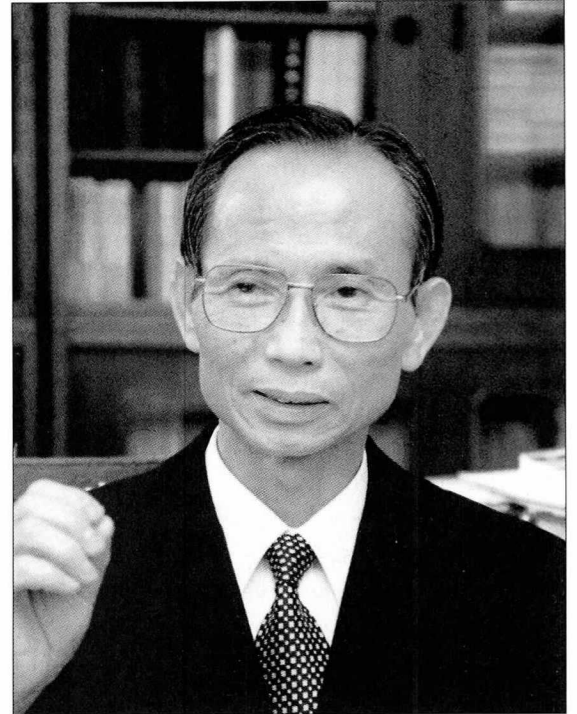
일본에서도 동시 출간

그가 최근 자신의 지난 삶의 기록들을 모아 《불행한 조국의 임상노트》(일요신문사)를 펴냈다. 이 책은 일본에서도 《한국의 정치재판》(사이마루 출판사)이라는 제목으로 동시 출판됐다. 한변호사는 “진실(眞實)과 공의(公義)에 국내외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일본 출판사의 출판제의를 수락했다”고 배경을 설명한다.

이 책은 한변호사가 그동안 여러 지면을 통해 발표했던 글이나 연설문, 변론요지 등을 주제별로 묶었다. 해묵은 글을 모았음에도 산만하지 않고, 개인의 체험을 기록한 것인데도 너절하지 않은 것이 이 책의 특징. ‘인권’과 ‘정의’에 대한 한변호사의 한결같은 철학은 씩여진 시기도 성격도 각기 다른 글들을 일관된 흐름으로 읽히게 한다. 주요한 정치재판의 현장을 어김없이 지켜온 한변호사의 남다른 체험은 이 책이 사사로운 개인의 회고담을 넘어서도록 한다. 이 책은 연대기적으로 씌어진 한변호사 개인의 자전 에세이자 한국 정치재판의 실록이기도 하다.



“그 시절의 고통은 나만이 겪는 질곡이 아니었기에 서로 격려하면서 더욱 의미있는 삶을 터득할 수 있었지요.”



한승헌 변호사.

전북 진안, 무주구천동 골짜기에서 태어난 한변호사는 1957년 이른바 ‘고등고시’에 합격, 검사생활을 거쳐 1965년 변호사로 전신했다. 변호사가 되어 무수한 지식인과 양심수들에 대한 변론을 했지만 그 역시 ‘별’을 두 개나 단 화려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 1975년 시인 김지하씨의 변론을 거부하라는 중앙정보부측의 요구를 거절한 데 대한 ‘응징’으로 한변호사는 ‘반공법 위반’ 피의자로 재판정에 서게 된다. 9개월의 옥살이도 처음 경험했다. 1980년 5·17때는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에 연루되어 육군교도소로, 김천 소년교도소로 옮겨다니며 수감생활을 하기도 했다.

이런 체험을 이야기하며 한변호사는 검사

석 변호사석 피고석까지 두루 거쳐본 범조인 있으면 나와 보라며 웃는다.

자전에세이자 정치재판의 실록

이 책의 1부 <고난을 넘어서>에 수록된 글들이 대체로 자전적인 글들이라면 2부 <내가 변호한 사건들>은 잊고 살아가던 옛 기억들을 다시금 되살리게 한다. 소설 <분지> 필화사건, 동백림 사건과 이응로 화백, 담시 <오적>과 김지하, 서승·서준식 형제, 김동길·김찬국 교수 구속사건 등 70년대 반독재를 위한 ‘겉없는’ 노력들과 인권의 사각지대였던 우리의 검찰 및 재판현장 등이 고스란히 복원된다. 뿐인가. 범민련 박순경 교수 구속 사건이나 입수경양의 입북사건 등 80년

대의 주요 사건들에 대한 기억도 새롭다.

“그 시절의 고통은 나만이 겪는 질곡이 아니었기에 서로 위로 격려하는 가운데 더욱 의미있는 삶을 터득할 수 있었습니다. 자랑스럽게는 못 살만정 부끄럽게는 살지 말자. 지식인의 도리는 다하지 못할지라도 학기(學妓)는 되지 말자는 것이 늘 다짐하는 자계(自戒)입니다”

과거에 비해 우리나라의 정치적 자유나 인권상황은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이것은 위정자의 도덕성 때문이 아니라 국민의 희생 덕분이라고 강조하는 한변호사는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국민들의 ‘불행’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 박남정 기자

화제의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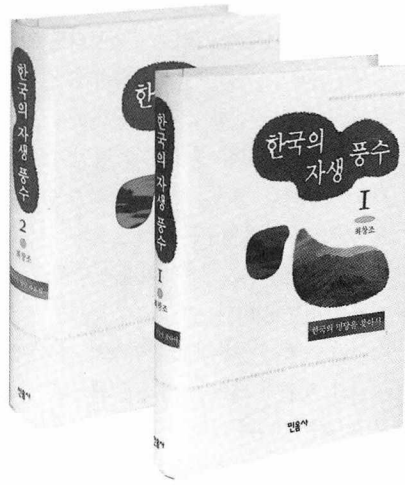
국토사랑 일깨우는 우리의 풍수사상

최창조 지음 《한국의 자생풍수》

3년전 서울대학을 떠났던 지리학자 최창조씨가 대학 사직 이후 변화한 풍수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두 권의 책으로 묶었다. 책 제목에서 짐작되듯 이 책은 ‘풍수가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이론’이라는 기존 학계 입장에 반기를 들고 우리에게서 우리 고유의 지리사상이 있음을 역설, 입증하고 있다. 저자는 이를 일러 ‘한국의 자생풍수’라 명명한다.

저자는 한국의 자생풍수의 시원을 도선국사의 풍수사상에서 찾는다. 도선국사의 풍수의 실지(實地)를 답사하고 그의 생애를 훑어나가는 작업을 통해 훼손된 국토를 치유하기 위한 국토사랑의 방편으로 풍수를 활용한 도선의 국토사랑을 확인한다.

1권의 절반을 넘는 분량을 차지하는 저자의 풍수기행 기록은 도선의 눈과 마음으로



돌아본 우리 국토의 모습을 하나하나 보여 줌과 동시에 그가 산과 들, 강으로부터 들었

던 ‘말’을 들려 준다.

2권은 보다 세밀하게 작성된 우리나라 각 지역별의 풍수다. 옛 지리지나 문헌, 지방지 등을 참고로 하고 직접 답사도 해 사람들이 자기가 살아가는 고장을 풍수적으로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가를 망라하고 있다. ‘명당’ 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 하여 이 책을 펼친 사람들도 자기 고장, 나아가 우리 국토 전체의 지리적 특성이나 그 속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이해를 얻을 수 있을 듯하다. 그것이 땅에 대한, 자연에 대한 사랑으로 연결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저자가 꿈꾸는 진정한 ‘풍수’가 아닐까. <박남정> 민음사/A5신/각 528·768면/각 18,000·25,000원